



## ○ 소 ○

### 당분간 강세유지



추석 성수기를 지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에 들어서면 전통적으로 소 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유는 육류수요가 가장 위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소비위

축에도 불구하고 산지 소 값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 조치로 산지 출하심리가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이 국내산 쇠고기 가격의 확실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 조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내 한미FTA 타결과 미국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이라는 압력이 시간이 지나 연말로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서 소비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개방화 시대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사수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소 값은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산지에 한우를 중심으로 출하대기 물량이 많아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입성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최소한 보험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돼지 ○

### 약세 속 반등

11월에 들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돼지 값은 월초와 월말이 다르다. 연중 가장 낮은 가격대를 보이는 10월의 여파가 11월 초까지 이어지지만 하루가 다르게 찬바람이 더욱 강해지면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하곤 한다. 이유는 중순의 대입수확능력시험과 월말부터 시작되는 김장철이 돼지고기 수요를 증가시키곤 해 어렵게 시작했던 월초를 부듯하게 마무리 하곤 했다. 다만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산지 돼지들의 비육속도가 빨라 출하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큰 반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특정위험물질(SRM) 검출에 따른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미국산 소갈비 수입 또한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양돈업계에서 우려했던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돼지 값 하락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 농가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또한 연초 무지막 지하게 수입되었던 수입산 돼지고기도 주춤한 가운데 국내산 돼지고기의 과다 출하만 자제한다면 돈가 대안과 같은 극단적인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초 돈가 하락이 불가피 하지만 중순이후 과다한 출하물량만 자제한다면 반등의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할 것이다.

(일간 미트뉴스 제공)

